

12. 모두투어 : 유럽 등 원거리 여행객 증가로 실적개선 전망

국내 대표적인 도매여행사

동사는 일반여행알선업, 항공권 및 선표 발권 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989년 설립된 도매여행사이다. 내국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기획여행상품과 항공권 판매 및 이에 부수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부문별로 국제관광알선업이 매출의 87%, 항공권 판매 사업 및 기타서비스가 13%를 차지하고 있다.

환율하락으로 여행업종에 대한 관심 고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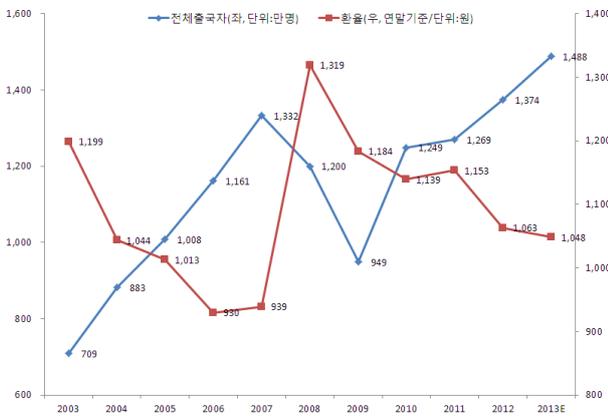
최근 주요국 통화 대비 원화강세 경향이 심화되며 2014년 1월 3일 기준 원/달러 환율 및 원/엔 환율은 각각 1,055원, 1,012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원화강세는 글로벌 경기 회복세로 인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바탕으로 해외 여행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행업종은 대표적인 환율하락의 수혜업종이다. 지난 10여년간 환율과 해외출국자수의 상관관계를 보면 환율 하락시 출국자수가 증가하는 모습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성장성 높은 FIT 사업에 적극 투자

동사는 그동안 경쟁사 대비 약한 FIT(Free Individual Travel, 개별자유여행시장) 사업으로 인하여 주가의 활인을 받아왔지만 올해부터 FIT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투어 사업 노하우로 인해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FIT 시장에 빠르게 침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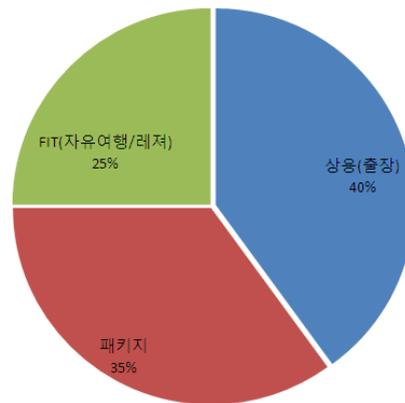
국내 여행상품의 부문별 M/S를 살펴보면 상용(출장) 40%, 패키지 35%, FIT(자유여행/레저) 25%로 나뉘어 있는데, 최근 항공권과 호텔만 선택하는 상품인 '에어텔' 등의 FIT 상품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이는 그 동안 저렴한 패키지 상품을 선호하던 젊은 세대들의 개인주의 트렌드, 어학능력 향상 등으로 인한 영향으로 그룹 패키지 상품보다는 FIT 상품을 선호하고 있고, 여기에 중장년층을 위주로 높은 퀄리티 서비스와 편의성이 여행상품 선택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으로 등장하면서 FIT 시장은 지속 성장이 예상된다.

[그림 23] 환율과 출국자수의 상관관계 (단위 : 만명, 원/\$)



자료 : 한국관광공사, 유화증권

[그림 24] 국내 여행상품 부문별 점유율 (단위 : %)



자료 : 한국관광공사, 유화증권